

현대오일뱅크, 유류 저장시설 330억원 투자

현대오일뱅크(대표 권오갑)는 울산 신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저장 사업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중인 사모투자펀드를 통해 3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6월12일 발표했다.

2월 현대오일뱅크의 유류저장 사업이 분리돼 출범한 현대오일터미널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 신항에 약 29만톤의 유류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으로 총 공사비 900억 원 중 36%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주요 연기금이 출자자로 있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사모투자펀드의 투자는 사업을 기금가입자인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이후 현대오일터미널을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자금을 토대로 동남아 등 해외에 상업용 유류저장 사업을 확대해 동아시아 최대 물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치로 현대중공업 편입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다각화가 더욱 탄력을 받고 울산항 오일허브 계획을 추진할 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국내는 물론 중국, 타이완, 베트남, 홍콩, 미국 등에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 전문회사로 누적 자산 약 2조3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2>